

‘AI 정약용’ 만난 아이들...통합특별시 미래 그린다

강진중앙초 ‘2030 꼬마 정약용 교실’

광주경양초 학생들이 온라인 참여 지역 소멸·교육 인프라 분석 등 “빈 건물 문화공간 활용” 등 제안 ‘어린이 경제유표’ 작성·발표도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 학생들이 ‘행정통합’을 의제로 다루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

강진중앙초등학교는 지난 21일 ‘꼬마 정약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30 꼬마 정약용 교실’을 개최했다.

2030교실은 학생연구 감소와 교육 격차 심화 등 전남이 직면한 2030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이다.

이날 수업은 강진중앙초와 광주 경양초 4학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학생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



강진중앙초등학교가 최근 ‘2030 꼬마 정약용 교실’ 수업을 개최. 광주 경양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교류하고 있다. /박선욱기자

계하다’를 주제로 통합이 가져올 미래 변화를 살피고, 지역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수업은 단발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정통합이라는 의제를 충분한 호흡으로 탐구·분석·설계할 수 있도록 총 17차시에 걸쳐 설계된 프로젝트형 장기 수업이다.

학생들은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를 인구·인프라·교육 측면에서 분석하고 모둠별로 어린이 경제유표를 제작·발표하며 자신들의 제안을 공

식적으로 남기는 ‘학생 주도의 미래 설계’를 실천한다.

2030교실에는 AI로 구현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등장했다. 화면 속 정약용은 ‘경제유표’에 담긴 개혁 정신을 소개하며 “더 살기 좋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에 학생들은 “빈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면 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모듬별 ‘어린이 경제유표’로 작성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집필한 ‘경제유표’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200여년 전 다산이 꿈꿨던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직접 써 내려갔다. 마지막에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 자신들의 제

안을 공식적으로 남겼다.

이번 수업은 ‘지역’을 주제로 시공의 한계를 넘어, 전남·광주 교사가 참여하는 ‘1교실 n교사’ 수업이 펼쳐졌고, 전남·광주 교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공간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 200년 전 실학자인 정약용을 AI로 구현해 시간의 경계를 확장하며 학생들은 시공을 넘나드는 배움 속에서 과거의 지혜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고, 미래 지역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경험을 했다.

강진중앙초 4학년 김서민 학생은 “AI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가 만든 자료에 대해 부족한 점을 알려줘 도움이 됐고, 광주 친구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수업이 돼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수업은 행정통합이라는 지역 의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배움의 주제로 참여하는 주도성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33개 교실을 시작으로 올해 119개 교실을 추가해 현재 총 252개의 ‘2030교실’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박선욱기자

동신대, ‘그린 리모델링’ 전문인재 양성 본격화

국토교통부 ‘GR 플랫폼’ 사업 선정

5억 투입 실무형 교육 체계 구축

건축·에너지·설비 등 융합 강화도

동신대가 국토교통부 주관·안전관리원 운영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GR) 인재 양성 플랫폼 사업’에 선정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선다.

25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그린 리모델링 인재 양성 플랫폼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에 맞춰 그린 리모델링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동신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기계설비전공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산업체·대학이 함께하는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역 특화형 그린 리모델링 교육 플랫폼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GR-MAP 기반 교육과정 개편 ▲GR-FARM 비교과 교육 로드맵 운영 ▲지산

2026년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착수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13:30~ 장소 : 동신대학교 동강홀 후원기관 :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 국토인재



최근 동신대 그린 리모델링 인재 양성 플랫폼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공헌 및 성과 확산 체계 마련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교육과정도 대폭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공학 ▲기계설비공학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 ▲설비시스템최적제어 등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고, 캡스톤디자인과 전공 연계 봉사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학과 간 융합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건축학

과, 전기공학과, 소방안전학과 등 관련 학과가 함께 참여하는 그린 리모델링 분야 융합형 교육 체계인 GR-MAP을 구축해 건축·에너지·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이주희 총장은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녹색건축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조선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S등급

호남 유일...19년 연속 사업 선정

조선대가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호남 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19년 연속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25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5-2026년 추진되는 2개년 사업의 2차년도 연차평가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년 선정된 전국 9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S등급(18개교), A등급(56개교),

B등급(18개교)으로 구분됐으며, 총 885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조선대는 기본사업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기존 사업비에 10%의 추가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호남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S등급을 획득하며 지역 고교교육 지원과 대입전형 운영 역량에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춘성 총장은 “고교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市교육청, ‘글로벌 리더 팔도 한바퀴’ 120→250명 확대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세계적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팔도 한바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리더 팔도 한바퀴’는 학생들이 전국 각지의 역사·문화·생태·산업 현장을 탐방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초등학생 4팀, 중학생 16팀 등 20팀 250여명이 전국 18개 지역을 탐방한다.

지난해 120여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학생들은 학교별 탐방 주제에 따라 제주·대구, 서울·인천·강화, 함양·진주, 세종 등 민주·인권·평화, 역사·문화, 기후·생태, 산업현장을 경험한다. 지난 16일에는 신광중 학생들이 1박2일간 전주에서 역사·문화·역사·문화를 체험했으며, 20일에는 운수초 학생들이 울산으로 생태·문화·산업 자원 체험활동을 떠났다. /박선욱기자

묘이강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 문의) 062-464-3466